

사회



“폐 의약품은 동네 약국으로” 2일 광주시 남구와 남구약사회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푸른길공원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남구는 이날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먹다 남은 약은 동네 약국으로 가져다줄 것을 홍보하는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희망근로 사업도 ‘양극화’

## 육체노동 기피 참여자 15%가 포기 ... 내근은 줄이어 ‘부익부 빈익빈’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뼈저리게 거리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등 사업 분야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마저 빚어져 기초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참여자 7천508명 중 중도 포기는 지난달 24일 현재 1천132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각 구는 지난 6월 1일 사업 시행 전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선발방식 및 필요인원, 활용방안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모집인원을 선발했다.

구별 중도 포기자는 ▲동구 140명(모집원 650명) ▲서구 1천530명(1천530명) ▲남구 294명(1천240명) ▲북구 169명(2천458명) ▲광산구 498명(1천630명) 등이다. 각 구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각 구에서 시행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거리정소·시설물 정비 및 보수·쓰레기 수거·도로이름 건물번호 부여·인감대장 일제정비·소

상공인 상권 분석·산불취약지 인화물질제거사업 등 609개다.

그러나 한시적 고용(6개월)·저임금(하루 일당 3만6천원)·단순노동에다 업무의 과중 정도가 서로 다르면서 사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근직보다 내근직을 선호하는 현상이다. 동구의 경우 숲 가꾸기 사업 정원 22명 중 중도 포기자는 9명이다. 서구도 덕흥주민센터 조성사업 정원 170명 중 중도 포기자는 50명(추정)이다. 광산구는 희망근로 참여자 86명을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보냈으나 6명이 중도 포기했다.

복지시설 지원·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영산강

친수 정화·꽃 전시 및 재배·공공시설물 주변환경정비·동산로 정비 등 육체 노동이 불가피한 외근직 근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잡자는 과오납금 환부·주민등록번호 정비·민원안내 등 공무원 업무 보조 형식의 사업 참가 신청은 줄을 잇고 있다.

북구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한 김모(36)씨는 “사무분야가 나올 것 같아 관련업무를 선택했으나 지원자가 대거 몰려 떨어졌다”며 “일이 너무 힘들다 들어 조만간 그만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교수 성접대 의혹’ 일파만파

## 대한의사협회 “회원자격 박탈 등 중징계” 전공의협 “파면” 요구...경찰도 수사 착수

전남대병원 교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일 진상을 규명해 회원자격 박탈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전공의협회는 광주지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고 ‘교수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의협은 이날 “전남대병원 모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부담케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있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의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해당 교수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이른 시일 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회의도 이날 “사직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교수직을 파면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수직 파면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력 문제에 병인 측이 미연적으로 처리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비용을 내게 했다면 엄중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며 대학측의 진상조사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광주지방경찰청은 우선 해당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과도한 회식비를 대신 내도록 했는지와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수와 전공의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청산가리 막걸리’ 현장검증

# 父女 끔찍한 범행 재연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를 나눠 마신 자신의 부인과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부녀(父女)는 현장검증에서도 담당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순천지청은 2일 순천시 황전면 피해자의 집과 마을 일대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A(59)씨와 딸 B(26·사건)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 창고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는 장면을 시작으로 범행을 차례로 재연했다.

A씨 부녀는 이날 과란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눌러썼으나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몰려들자 고개를 꼭 숙였다. 순천지청 직원들이 “청산가리를 어떻게 넣었느냐?”라고 묻자, A씨는 담당관 자세로 현장검증에 임했다.

이후 A씨 부녀는 자신의 집에서 직선거리 50여m 떨어진 마을 개울가로 자리를 옮겨 남은 청산가리를 버릴 모습도 재연했다. A씨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부인과 마을 주민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A씨 부녀는 창고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검은색 봉지에 담아 마당에 놔두는 장면을 수차례 되풀이



했다.

검찰이 설치한 출입통제선을 넘고 들어온 한 주민은 “수십 년 간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몸을 떨었다. 순간 A씨 부녀도 고개를 숙였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 부녀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딸 등록금 고민 음독

지난 1일 밤 9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L(여·44)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동생(3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L씨는 10여 년 전 이혼한 뒤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딸(18·고교 3년)을 키웠으며, 최근 딸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다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를 바꾼 것과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 기자 golee@

## 생후 3일 신생아 판 비정한 부모

○대구 서북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이를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여·28)씨와 동거남인 이모(22)씨,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산 안모(여·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류씨와 이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안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생후 3일된 자신들의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씨는 백모(여·34)씨에게 같은 날 오후 5시께 465만원을 받고 이 아이를 다시 판 혐의.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류씨와 이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병원비와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안씨가 접근해오자 아이를 팔아넘겼다는 것.

/연합뉴스

## ‘418% 폭탄 이자’ 20대 사채업자 구속

### 목포경찰, 152명 피해

목포경찰청은 2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리 400% 이상의 폭리를 쥔 사채업자 A(26)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목포시내에 전단을 뿌려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 152명에게 100

만~1천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을 빌려주고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고전단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49%)의 10배에 달하는 418%의 이자를 받는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를 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 고교생이 5만원권 위폐 유통

### 순천경찰, 2명 검거

순천경찰청은 2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유모(16·고교 2년)군 등 고교생 2명을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5만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한 뒤 이 중 3장을 인근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 등은 인터넷에 떠도는 5만원권 지폐의 견본사진을 컴퓨터를 사용해 직접 편집한 다음 인쇄하는 수법으로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폐가 조잡하다”는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를 받고 위폐 여부를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국 최대 판매 실적 달성! 15주년 기념

아이엘리시아

HAIR & SKIN CARE

062-671-1199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KA310N

390,000원

219,000원

062-515-1144